

섬유 업계에서 들려오는 토막 소식들 <10>

◎ 중국 쑤저우 지하철 공사 늦어져

일본의 무역상(貿易商)인 이즈미야(泉屋)는 중국 1호점으로서 쑤저우 역주미아 상무(蘇州 億珠美亞 商貿)를 2008년 5월에 설립하고 2010년에 개점할 예정이었는데 쑤저우 지하철 공사가 늦어져 1호점 개점도 따라서 늦어지고 있다. 이즈미야의 중국 1호점은 쑤저우 지하철 1호선이 2011년에 개통되는 시점에 지하 1층에서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지하철과의 직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쑤저우 지하철 1호선 공사는 항저우 지하철(杭州 地下鐵) 등 다른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낙반 사고(落盤 事故)가 있었고 그 영향으로 이곳 공사도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 중에서도 성장률이 높은 쑤저우시(蘇州市)로서는 국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실패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공사 진행 정도로는 2012년 7월에야 겨우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7월 1일에 개통한 고속 신간선(高速 新幹線) · 호령 고속 철도(扈寧 高速 鐵道)는 상하이와 쑤저우를 종전에 35분 걸리던 것을 불과 12분만에 달릴 수 있게 되어 이로써 쑤저우는 상하이의 교외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 일본의 면사 부족 -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

일본 국내에 면사가 부족해지고 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방적 공장이 아무리 축소되거나 폐쇄되어도 해외로부터 즉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본 방적 공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면사 수급 상황에 대하여 담당자 책임을 묻지 않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정변사조차도 부족해지게 되자 그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생산 의뢰가 갑자기 들어오고 있다.

한 때 대형 방적의 대표였던 사람 중에는 “오직 가격만을 경쟁시켜 싼 것부터 사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금이라도 싼 것보다는 안정 공급 보증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고 개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버블(bubble) 경제가 무너지자 끝없이 가격 경쟁이 일어나, 그 받침대로서 중국이 머리를 들고 나타나면서 안정 공급 보증(安定 供給 保證)의 가치는 완전히 사라져 가고 있다.

이번 소동이 가라앉으면 일본 국내 방직 공장의 존재감은 또 다시 약해지는 것일까? 또는 만일의 경우에도 현재의 발밑을 볼 것 없이, 가능한 최선을 다해줄 파트너로서 다시 책임을 다해줄 수는 없을까?

◎ 여러 색상 층의 그라데이션 데님 기술 개발

니혼 면포(日本 綿布) 사장은 “진짜 일본제 부가 가치 상품을 온 힘을 다하여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단계적 변화가 나타나도록 한 그라데이션 데님(gradation denim)을 여러 색상으로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새로운 로프 염색기(rope 染色機)를 사용하여 면사를 여러 농도의 색으로 층지게 염색하고 독특하게 색이 점차 빠지는 무늬를 만들었다. 적색 계통을 사용하여 4단계 그라데이션에 성공하였다. 앞으로 데님에 알맞은 색으로 염색하는 것을 개발하여 2010년에는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번 개발로 독창적이며 시장성이 높은 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표창하는 뉴 비즈니스 대상도 수상하였다.

사장은 “앞으로도 해외에서 모방할 수 없는 상품을 개발하여 일본 섬유 산업을 향상시키겠다.”며 다음 번 개발에 큰 의욕을 보였다.

◎ 중국에서 제일 환영받는 복리 정책은 주택 보조

중국 베이징시(北京市)의 외자계 기업 인력 자원 서비스 유한 공사(外資系 企業 人力 資源 service 有限 公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환영받는 복리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주택 보조 복리가 외자계 기업 종업원으로부터 가장 인기가 높았다.

이번 조사는 685개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중에서 외자계 기업 종업원이 82%를 차

지하였다. ‘사회 복리, 의료(醫療) 복리, 보조형(補助型) 복리, 투자 저축형 복리, 종업원의 직업 발전 복리, 종업원의 생활 복리’ 등 6가지 32개 항목의 복리 내용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 보험, 주택 적립금 등 사회 복리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높으며, 사회 복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한 종업원이 61.5%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 날이 갈수록 뛰어오르는 주택 가격은 이미 화이트 칼라(white collar)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근심거리가 되고 있어 76.3%의 종업원은 제일 중요한 보조형 복리의 내용에서는 ‘주택 보조’라고 대답하였다. 복리에의 관심도는 의료(醫療) 복리가 제 2위이고 차례로 보조형 복리, 직업 발전 복리, 투자 저축형 복리, 종업원의 생활 복리의 순이었다.

◎ 일본의 면사가 수요와 공급에서 심한 불균형 보여

19세기 독일 경제학자인 헬렌 하인리히 고센은 1854년에 쓴 가장 잘 알려진 ‘인간 교역론’에서 고센의 법칙이라고 하는 한계 효용 이론(限界 效用 理論)을 밝혔다.

그 중 제 3 법칙은 ‘재(財)의 가치는 재의 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었을 때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 배가 불러 아무 것도 먹고 싶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보아도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에 공급 과잉이 되고 있는 어패럴 제품에서도 소비자 수요를 넘은 만큼의 상품 가치는 한없이 제로(zero)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신상품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중국에서 생산이 어렵게 되어 ‘조금썩은 공급을 줄이는 것이 전체로서는 좋다.’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확실히 일본 국내 수요에 걸맞을 정도의 전체 최적 공급량을 유지한다는 직감적인 슬기로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 일본 국내 섬유 산업 필요성 어필할만한 시기(timing)가 아닐까?

가벼운 두통을 느꼈는데 공교롭게도 상비약이 다 떨어지고 이 약을 사러가는 것도 귀찮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약이 들어 있는 약상자를 놓고 가는 약 장사꾼(약 상자를 집집마다 맡겨 놓고 얼마 지난 후 다시 와 사용한 약만큼의 요금을 받아가는 업자)

이 찾아왔다. 그동안 이렇다 할 사유도 없이 거절해 왔었는데 그날만은 처음으로 받아두기로 하였고 이로부터 시작되어 어느덧 10년 이상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예가 아래의 상황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언제라도 수입될 줄 알았던 제품이 실 부족, 생지 부족, 봉제 직원 부족 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난처해진 끝에 방적 공장이나 생지 산지에 중국 대신으로 생산을 부탁하는 사례도 생겼는데 이런 현상은 우연치 않게 한번 생길 수도 있는 일과성 일인지도 모르지만 일본 국내 제조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필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기(timing)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에만 의존하던 어패럴이나 소매 기업은 지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려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일본밖에 만들 수 없는 ‘신상품 만들기’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하기 위하여 어패럴이나 소매 기업에게 어떻게 협력해 주면 재활할 수 있게 될까? 지금이 바로 그런 것을 서로 말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